

2013

# 투명해서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 변화

나눔 →

## 01 여는 글

### ● 아름다운재단 소개

- 02 아름다운재단의 지향과 가치
- 04 아름다운재단의 운영원칙
- 06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 09 투명한 아름다운재단
- 11 한눈에 보는 2013 아름다운재단

### ● 아름다운재단 모금

- 15 아름다운재단 새기금
- 17 1%나눔캠페인
- 32 기업시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 ● 아름다운재단 사업

- 37 공익활동 지원
- 43 아동청소년 지원
- 51 사회적약자 지원
- 58 기부문화 확산

### ●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 64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재정
- 6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66 재무제표
- 70 기부자 명단

## 82 닫는 글

# 2013년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를 보고 드립니다



2013년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보람 있는 일은 더욱 많았습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급식단가 상향을 위한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모금도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이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여론의 힘으로 급식단가 정부예산이 1,520원에서 2,069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결실을 얻은 것이 제일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 정착꿈 캠페인〉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더위 시즌2 캠페인〉 역시 많은 성과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인 〈희망가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200호점을 개점하는 경사가 있고, 조촐한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교보생명과 함께하는 이른둥이 지원사업인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도 올해 맞이하게 될 10주년을 준비하며 성과와 사업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부문화 연구사업으로는 기업기부지수와 문화예술기부지수를 발표하는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2013〉을 개최하였고, 교육사업으로는 GS칼텍스 후원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어린이 나눔캠프〉를 비롯해 비영리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부문화종서 발간과 브랜드레이징 강연행사가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축할만한 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제19회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것과 '횡령' 관련 고소·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결정된 것을 꼽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희소식으로는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저희 재단에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영화가 기록적인 대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께서 국가의 배상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시아민주주의와인권기금〉을 아름다운재단에 조성하기로 한 일 등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기부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협력기관과 공익활동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재단 구성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예종석

# 아름다운재단의 지향과 가치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어 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 ● 미션

###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 비전

### 행동하는 시민 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은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행하는 기부자들의 가장 성실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모델 인큐베이팅

공익활동은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사회 전체의 패턴을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신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 ● 핵심가치

### 투명성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때부터 국내 최초로 비영리단체의 회계에 ‘투명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행, 정례적인 기금 보고를 통해 신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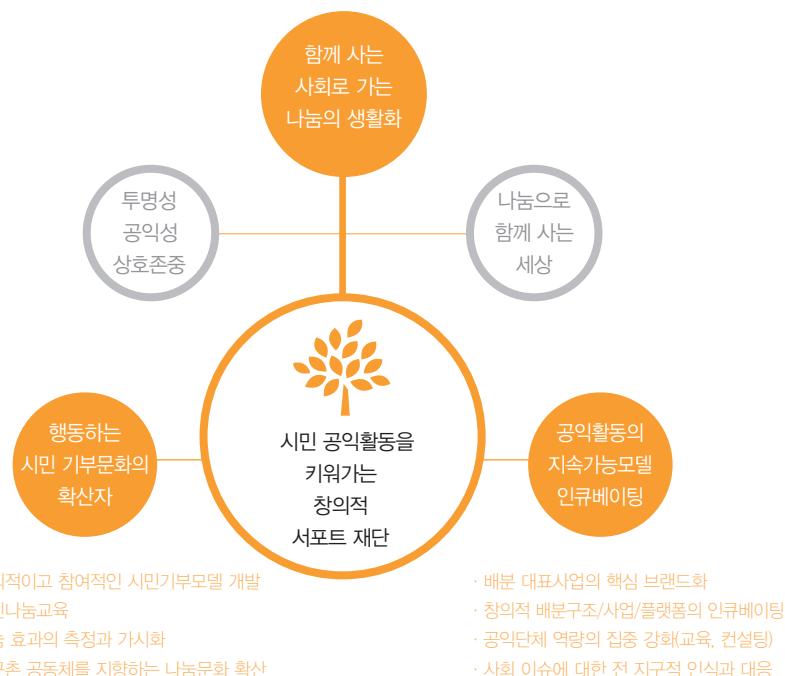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공익성

아름다운재단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문제의 근본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공익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민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1%나눔 캠페인>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공익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상호존중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삶의 연대기를 고려한 다양한 기부방법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부방법을 안내하고, 도움 받는 이에게는 지원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름다운재단의 운영원칙

아름다운재단은 사람과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운영

아름다운재단은 기업재단이나 가족재단과 달리 특정 회사나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을 운영하는 이사회 역시 기업 관계자, 학계, 엔지오 · 엔피오(NGO · NPO) 지도자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 다양한 시각이 재단 운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사회의 신뢰와 지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재단은 시민과 공동체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어놓은 기부금으로 기금이 마련되고 운영되기에 우리 사회와 수많은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시민과 사회를 위한 혜택

아름다운재단의 이익은 모두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이익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쓰여집니다. 또한 지역재단의 자산 이익 역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 ● 공정성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오로지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의 선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은 항상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투명성

**재정, 사업, 운영의 모든 내용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한 기부자의 소중한 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름다운재단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부자들과 지역사회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살림살이도 더 이상 보여드릴 것이 없을 만큼 모두 공개합니다. 시민과 사회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재단,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 전문성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합니다.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 사회단체와 경제계, 사회복지와 엔지오 분야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사들이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대가도 없이 참여하며,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재단은 알고 있습니다.

## ● 종합성

**우리 사회와 기부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도 시민단체지원재단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재단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소외와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영역을 갖는 많은 기금들을 조성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온정적 자선을 뛰어넘는 나눔문화운동을 실천하며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공익재단입니다.

## ● 대중성

**특정 인사, 특정 단체, 특정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재단입니다.**

한 사람의 큰 돈이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고 이끌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재단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소박한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열 사람이 한 길로, 함께 걷는 한 걸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 ● 이사회

아름다운재단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아름다운재단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합니다. 시민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 예종석 이사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강용현 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김홍남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 박영숙 이사

플레이시먼힐러드 대표

### 박희옥 이사

원더스페이스 대표

### 손혜원 이사

크로스포인트 대표

### 송상현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국제형사재판소장

### 신용호 이사

금강제화 대표이사

### 이대공 이사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 조홍식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 주원석 이사

미디어윌그룹 회장

### 한찬희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 박종문 감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정준희 감사

전 앤트로젠 재무담당이사

## ● 배분위원회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배분단체를 심사,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박경태 배분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김경옥 배분위원

공간 만들레 대표

### 김연순 배분위원

전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

### 김운호 배분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김지수 배분위원

전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남기철 배분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호 배분위원

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이숙진 배분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임종화 배분위원

좋은교사운동 대표

### 장이정수 배분위원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홍현미라 배분위원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기금운용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아름다운재단 자산운용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자산의 투자계획 및 자산운용방안을 확정합니다.

#### 김지총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문기호 위원

에이스투자자문 감사

#### 홍성혜 위원

시티은행 CPC 강남센터장

#### 김진곤 위원

우리투자증권 Premier Blue  
강북센터 상무

#### 이채원 위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부사장

### ● 기부컨설팅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기부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기부계획을 실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권광중 고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이자선 위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하재영 위원

하나법무사사무소 법무사

#### 강용현 위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차병직 위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부동산 분과〉

#### 〈변호사분과〉

김승호 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세무 · 회계사 분과〉

김귀순 위원  
세무법인 부민 대표세무사

#### 〈금융 분과〉

#### 양동수 위원

공익재단 동천 변호사

#### 이광재 위원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 고득성 위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Private Bank  
삼성센터 이사

#### 유철형 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구성 위원

한국세무사회 회장

#### 오승택 위원

신한은행 Private Bank  
스타타워센터 팀장

#### 이상희 위원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법무사 분과〉

강옥분 위원  
하나법무사사무소 법무사

#### 이만수 위원

하나금융그룹  
Wealth Management 본부 이사

## ●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우리사회 건강한 기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 원윤희 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장  
세무학과 교수

### 〈연구운영진〉

#### 〈기부문화분과〉

#### 한동우 연구부소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강철희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김운호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노연희 연구위원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인식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박태규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박 철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오준석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이민영 연구위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형진 연구위원

도서출판 아르케 대표

#### 조상미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한정화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황창순 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공헌분과〉

#### 박성연 연구부소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용준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김익성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판로유통연구실장

#### 이상민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상경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제도법제분과〉

#### 이상신 연구부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서희열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박내천 연구위원

세무사

#### 박 훈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손원의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송현재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윤태화 연구위원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운영이사〉

#### 김영진 운영이사장

(주)한독약품 회장

#### 김 량 운영이사

삼양그룹 부회장

#### 김기수 운영이사

(주)모헨즈 회장

#### 김일섭 운영이사

한국형경영연구원 원장,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 김정완 운영이사

(주)매일유업 회장

#### 김종민 운영이사

(주)스탭뱅크 회장

#### 남승우 운영이사

(주)풀무원 사장

#### 박용만 운영이사

두산그룹 회장

#### 윤재승 운영이사

(주)대웅 부회장

#### 이강호 운영이사

(주)한국그린포스펌프 사장

#### 정몽윤 운영이사

(주)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 투명한 아름다운재단



## ● 기부자님들의 믿음과 신뢰가 아름다운재단의 명예

“아름다운재단이 20억 원의 기부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2011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름다운재단 횡령 혐의 없음” 결정(2013년 9월 25일)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강요했다”

↳ 서울지방법원 “근거 없는 음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결정(2014년 3월 5일)

2011년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2,000여건의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을 고지하고 알렸지만,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써늘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 기부자분들께서는 기부를 중지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기부자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기부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2년에 걸친 검찰과 법원의 결정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실추된 아름다운재단과 기부자 여러분의 명예에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 아름다운재단 한국윤리경영학회 <제19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2013년 5월 31일)

근거 없는 의혹 해소와 더불어 작년에는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여한 것도 반가운 뉴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단을 믿고 기부해주시는 기부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 흔들림 없는 길을 걷겠습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의 전 임원이자 기부자로서 소중한 분입니다만, 아름다운재단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정관에 명기하고 있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임원은 바로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름다운재단은 어떠한 음해와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바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재단과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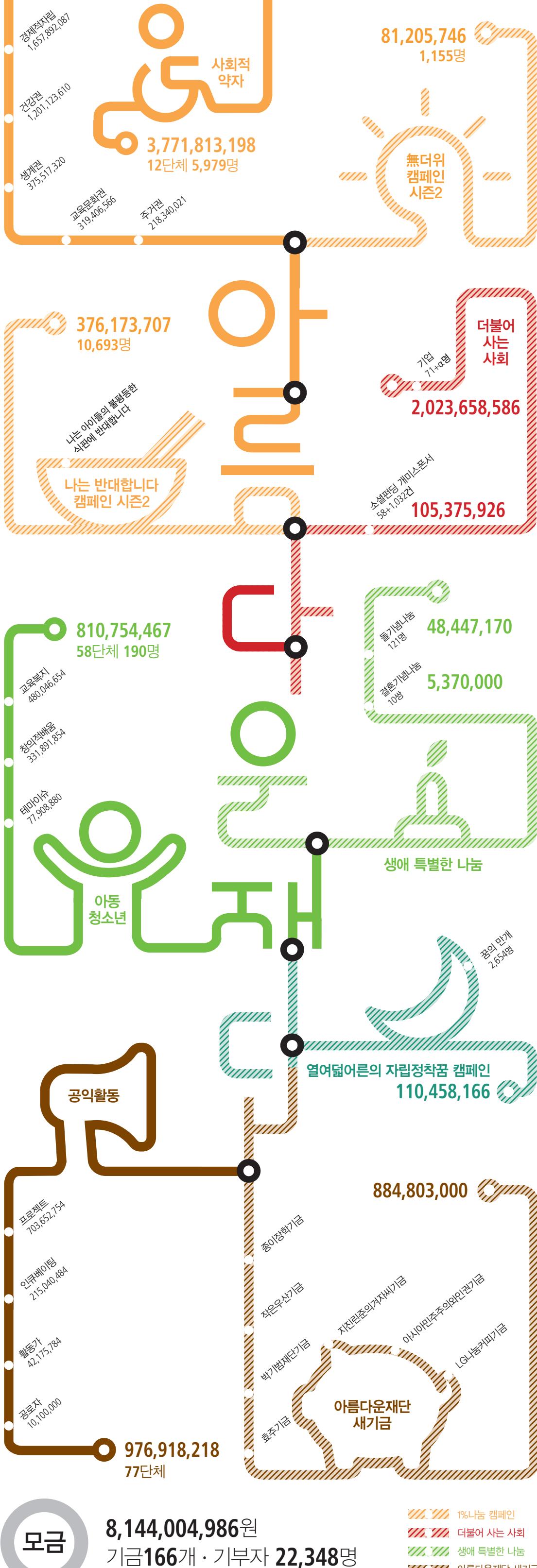
그 무엇보다도 기부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아름다운재단의 값진 명예입니다.

# 아름다운재단 2013연차보고서

## 사업

**6,439,863,485원  
205단체 · 10,889명**

- 공익활동
- 아동청소년
- 사회적약자
- 기부문화 확산



# 한눈에 보는 2013 아름다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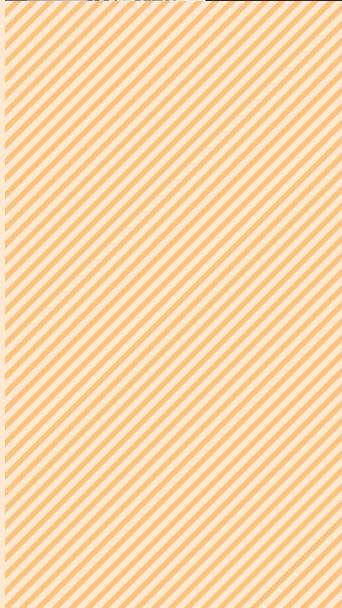


## 기부문화 확산 '연구, 교육, 소통'

2013년 새해, 소득공제 2,500만원 한도에 기부금을 포함시켜 고액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크게 축소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부문화연구소는 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부금 손실 금액을 발표하고, 관련 모금단체 및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5월 7일 <기부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세특례 제한법 132조의 관련 조항은 무효화되어 기부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부관련 법제도와 다각적인 현황에 대한 4가지 주제의 '기부문화 기획연구'가 완료되어 학계와 모금현장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부관련 국내외 단행본과 연구 자료를 뽑아 각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공하는 아카이브인 '주석이 달린 참고 문헌 목록(Annotated Bibliography)'을 완성하여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에 오픈되었습니다. 향후 기부문화관련 학습과 연구자들에게 든든한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아름다운재단 캠페인'

사회 전반에 걸쳐 격차는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지만, 모금이나 기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주는 한 끼 식사비가 고작 1,520원

이라는 것에 황당함을 느끼고, 그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정착금이 고작 5백만 원, 이것도 지역마다, 시설마다 다르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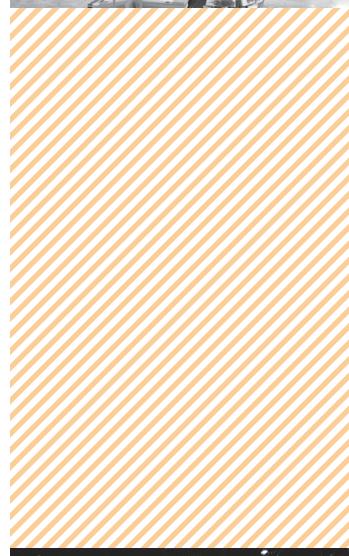
어쩌면 법이 해야 할 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에 왜 시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가와 같은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부는 주체적 참여를 통한 인도적 목적과 정책을 바로잡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민의 의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라는 참여형식을 빌려 관심과 공감,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이웃 속으로 안내하는 문화이자 운동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2013년에 주목한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의 급식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문제였습니다.

#### 희망가게 10주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재단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돋고자 아름다운세상기금을 기반으로 희망가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금출연 10주년을 맞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기부금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희망가게 사업 10주년 성과연구'를 진행하고, 한부모에 대한 세상의 편견 속에 당당히 일어서는 창업주의 모습을 현대무용가 안은미씨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땐쓰'로 녹여냈습니다.





### 어려운 이웃에게는 가장 가깝게, 공익을 위해서는 가장 멀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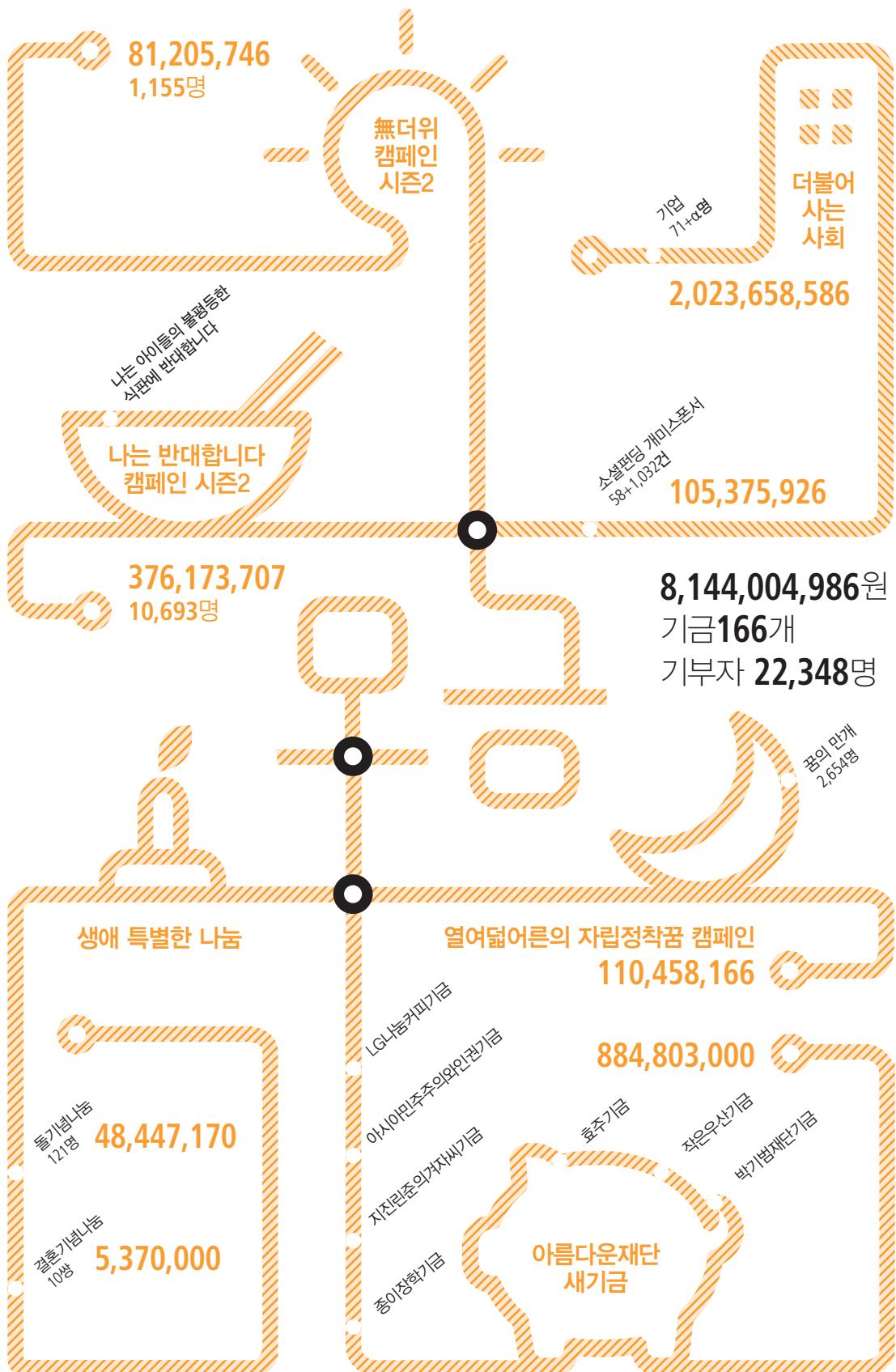
빈곤은 다양한 사회구조에서 기인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빈곤정책이며 우리가 원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국적이나 인종, 장애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돋는 ‘사회적 돌봄’을 지향합니다.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생/대학생 2개 부문 사업으로 일부 개편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꿈꾸는 다음세대’를 키우기 위해 2014년에도 개편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문제, 사회변화를 위한 해결방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담론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오픈형 컨퍼런스, 사회문제를 영화, 음악, 책, 연극, 공연, 예술로 사람들에 전하는 문화 캠페인, 복지정책 및 예산에 대한 알권리를 위한 기록공익활동, 사회적 약자 스스로가 사회인식개선과 문제해결 정책 제안자로 성장하는 역량강화 프로젝트, 지역과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이웃공동체 프로젝트는 모두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되는 ‘변화의 시나리오’입니다.



# 아름다운재단 새기금



## 지진린준의겨자씨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2월 28일

기금 조성자 전성배 정온주 님 가족

지원 사업 꿈꾸는 다음세대, 아름다운재단 운영

기금 분류 가족기금

출연금 1천만 원

〈지진린준의겨자씨기금〉은 한 알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 따뜻한 온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전성배, 정온주, 전예지, 전예진, 전예린, 전예준 여섯 가족의 ‘가족기금’으로, 네 아이의 이름 끝자리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아름다운재단 운영과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영역에 쓰여 집니다. 여섯 가족이 뿌린 겨자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종이장학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3월 27일

기금 조성자 김혜영 님

지원 사업 아동양육시설 퇴소주 대학생 교육비

기금 분류 가족기금

출연금 1천 2백만 원

〈종이장학기금〉은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가르쳐준 부모님을 보며 자신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름다운재단에 부모님의 이름을 담아 ‘종이장학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한 가족기금입니다.

## LG나눔커피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4월 23일

기금 조성자 김용수 님

지원 사업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기금 분류 일반기금

출연금 매월 기부

LG전자 MC연구소 연구원인 김용수 님은 동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선물하고 직원들로부터 소정의 기부금을 받아 장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아름다운재단 〈LG나눔커피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LG전자 MC연구소 직원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2014년부터 지원이 필요한 이른둥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효주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6월 21일

기금 조성자 한효주 님

지원 사업 어르신 생계비와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기금 분류 일반기금

출연금 2천만 원

잡지 화보 수익금과 ‘無더위 캠페인’ 기부를 통해 기부를 이어오던 배우 한효주 님은 아름다운재단에 <효주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 자라왔던 한효주 님은 특히나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효주기금>은 ‘어르신생계비지원사업’과 ‘아동 청소년문화체험지원사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 박기범재단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11월 12일

기금 조성자 故 박기범 님 가족

지원 사업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

기금 분류 일반기금

출연금 2억 원

2013년 5월 3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故 박기범 님을 추모하여 가족들이 <박기범재단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 가족들은 추모재단 설립을 고려하였으나 더 많은 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아름다운재단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박기범재단기금>은 가족들의 사랑이 만든 기금이면서, 동시에 재단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아시아민주주의와인권기금

기금 조성일 2013년 12월 23일

기금 조성자 김종수, 김준목, 변재용, 조희연, 하석태, 익명 기부자

지원 사업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 분류 커뮤니티기금 출연금 5억 5천만 원 약정

‘긴급조치 9호’의 위헌 판결로 국가배상을 받는 분들 중 일부가 그 배상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탁하여, <아시아민주주의와인권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를 돋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금 조성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수많은 무명의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을 기억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순수성을 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밥’은 누구나 먹어야 하는 세상 무엇보다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밥’ 앞에 평등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적 돌봄을 받는 1만 6천여 명의 아이들의 한 끼 식비 예산은 1,520원이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생활보장시설 수급자의 한 끼 식비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수급자 모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만 6백여 명, 3억 7천여만 원의 기부가 541억 원의 예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캠페인 기간 : 2012. 11. 09 ~  
2013. 02. 10

참여인원(명) : 10,693명

최종모금액(원) : 376,173,707원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년간 진행한 생활시설 아동 건강영향평가를 2014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급식단가 조정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자가 만들어낸 변화 보고서

### 2012년 10월, 터무니없는 밥값을 알게 되다

우리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을 포함해 생활보장시설 수급자의 한 끼 밥값이 1,420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다

이 사실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기에 아름다운재단의 〈나는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찾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이니만큼 공감하고 함께 변화의 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2012년 12월, 꾸준한 관심으로 기부금이 증가하다

기부자님의 관심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터라, 매년 달랑 100원 인상에 그쳤던 그 인상폭이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지리라는 믿음으로 2012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 2013년 1월, 고작 100원 인상된 2013년 예산에 분노하다

아이들의 급식비 예산이 2013년도에 고작 100원 인상된 것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 2013년 2월, 3억 7천여 만 원의 기부금이 모이다

3개월 간 모금 목표를 초과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더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 2013년 4월, 건강평가 연구, 적정급식비 지원, 공청회를 진행하다

전국 280여 곳의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까지 한 끼당 1,520원 이하의 금액으로만 지원받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바꾸고자 아동양육시설 대상 최초의 ‘건강영향평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보육원, 120여명의 아동에게 1년 동안 적정급식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양육시설 급식단가 상향을 위한 대책마련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 2013년 5월, 제도개선을 함께 이루어 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식비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만6천여명 생활시설아동들을 포함한 전체 시설수급자 9만여명은 기존 1,520원에서 549원 인상된 가격의 한 끼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10원	1,247원	1,281원	1,353원	1,405원	1,520원
\46원↑	\34원↑	\72원↑	\52원↑	\100원↑	
					↓
2013년 추가경정예산 : 2,069원 평균 549원 인상↑	2012년 12월, 급식비 인상 캠페인이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그러서 그나마 100원에 가까운 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의 표와 같이 최근 5년 간 인상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동 뿐 아니라 모든 생활시설 수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재단〈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상분을 환산해보면 9만명 · 365일 · 1일 3식 · 1식 549원 = 541여억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만 환산해 보더라도 5,410여억 원을 넘는 복지예산을 가져 올 것입니다.

기부자님의 참여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캠페인의 힘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되지 않을 때 확성 기 역할을 충실히 함에 있으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갓 2년이 지난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 담당자인 저는 기부자님들 덕분에 정말 많은 감동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늘 기억하며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일꾼이고 싶습니다. 기부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성혜경 간사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더위 캠페인 시즌2

2013년에도 시즌2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여름철 폭염  
방지 대책을 위해 총 1,567명에게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분들에게 폭염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위험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홀로 사는 어르신분들은  
집 이외에는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합니다. 선풍기 한 대, 여름이불 한 장으로 독거노인들의 외로운  
'사회적 죽음'을 모두 예방할 수 없지만 최소한 1차적인 지역중심의 이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이 결코 잊혀 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끌어내고, 동시에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노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캠페인 기간 : 2013. 05. 23 ~  
2013. 09. 30

참여인원(명) : 1,555명

최종모금액(원) : 81,205,746원

## 홀로 사는 어르신의 시원한 여름을 위하여

온난화로 인해 여름이 올 때마다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2년에 이어 이분들이 여름만이라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무)더위 시즌2>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말과 8월 초순 두 차례에 거쳐 총 1,567명 어르신께 선풍기 1,242대와 여름이불 325채를 전달하였고, 복날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먹을거리를 챙겨드리며 선풍기를 조립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자원활동에 참여한 김은실 기부자님께서 ‘무더위 캠페인’이란 무엇인지, ‘자원활동’이란 무엇인지 글로 엮어주셨습니다.

### 낮 기온 30℃를 찍던 어느 날, 받은 메일 한 통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지원하고자 하니 기부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나는 ‘또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에 메일을 삭제하려는 찰나 36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사무실에서 고작 30℃ 더위와 싸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는 작은 방의 실내온도는 36℃가 넘는다는 사실에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다.

어떻게 그 더운 곳에서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지내시다니… 집집마다 선풍기 1~2대는 기본이고 에어컨도 구비하고 사는 세상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부와 함께 선풍기를 배달해드리는 자원활동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복날을 맞이하여 신선설농탕에서 약 500여분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설렁탕과 수박을 준비해 주셨고, 자원활동가들이 음식담기 등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원활동가 모두가 “화이팅!”을 외치며

음식이 준비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고, 밥을 담는 임무를 맡았던 나는 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기에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물론 활동한 다음 날 내 팔과 다리에는 어김없이 근육통이 찾아왔지만 말이다.

배식활동이 끝나갈 무렵 자원활동가들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나왔는데 식사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아셨는지 혼자 급하게 식사를 하고 계신 할머님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할머님께서는 가방에서 믹스커피 두 개를 꺼내어 나에게 주셨다. 이 설렁탕은 내가 대접해 드린 게 아닌데도 기어코 나에게 주고 가신 커피 두개. 한 잔에 5천 원 하는 커피도 쉽게 사먹는 나이지만 할머니가 주신 커피 두 개의 소중함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뵙다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날, 자원활동가로 참여한 배우 한효주씨와 한 조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효주씨는 전날 직접 수박을 사서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게 잘게 썰어 준비해오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수박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할머니와  
(좌)김은실 기부자(중간) 한효주 기부자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린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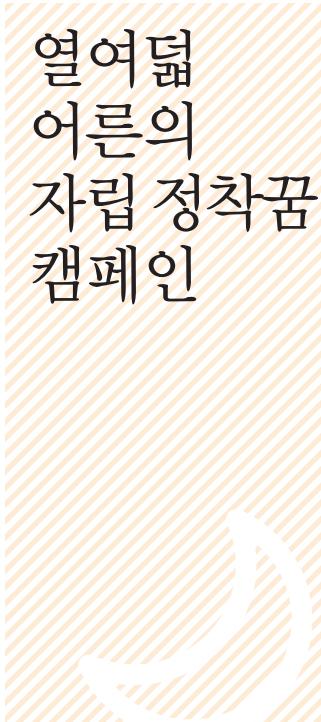
총 네 분의 어르신을 방문했는데 몸 하나 뉘이면 꽉 찰 것 같은 작은 방에 창문은 없거나 아주 작은 창문 하나 있을 정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져 있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바깥보다 기온이 높아 숨 쉬기가 어려운 집에서 선풍기를 조립하고 틀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바깥출입을 자주 못 하실 장마철이라 선풍기 한 대라고 있으면 여름 지내시기가 조금은 수월하실 것 같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하지만 별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 선풍기와 여름이불보다 더욱 필요한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처음 방문 드렸던 할머님은 우리를 보시자마자 눈시울이 불어지셨다. 낯선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으면 그려셨을까.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원활동에 참여한 건 처음이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 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좋겠고 자원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원활동은 어려운 일도 거창한 일도 아니기에 당장 도전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글 | 김은실 기부자



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소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정착금이 튼튼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이 자립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자금이지만 지난 20년간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금액편차가 큰것은 물론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미비한 사후관리체계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 2013. 11. 04 ~  
2014. 03. 31

참여인원(명) : 2,654명

최종모금액(원) : 110,458,166원

시민들과 함께 자립정착금 개선 활동을 펼쳐 총 2,654명 110,458,166원의 모금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약 60여 명의 퇴소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조사와 추적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민관협력에 의한 공청회 및 정책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열여덟, 또래가 또래를 응원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서 자립해야합니다. 아이들은 시설퇴소 후 당장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면서 꿈과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같은 현실을 알리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여덟어른의 자립정착꿈'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시민 참여의 방법을 넓히기 위해 판매수익금 전액이 아이들 꿈 이루기에 쓰이는 2014 다이어리<꿈 활짝 피어나다>를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다이어리 구매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 화명고 2학년 11반 친구들과 조정련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시작,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기

트위터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정착금 사업을 처음 접하고 학급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평소 공감지수가 높고 열린 마음으로 늘 칭찬받던 2학년 11반 그녀들 아닌가. 교실 게시판에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쇄한 자료를 붙여놓고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고아원이나 보육원에는 TV에서 보던 대로 어린 아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그들이 자라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사회에서 훌로 자립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진로 고민과 입시 준비에 벼거워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들에게 그저 '평범'하고만 싶은 그들의 상황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만은 않았다.

### 나눔, 관심에서 참여로

아이들의 호응을 확인하고, 교실에 작은 기부함을 만들었다. 학생들이라 액수보다는 자립정착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싶어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모금을 위해 판매하는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모금 마지막날 추첨 상품으로 주는 이벤트였다.

그러나 다이어리 구입 후 크리스마스가 겹치는 바람에 배송이 늦어져 미리



화명고 2학년 11반 아리따운 그녀들

보여주지 못해 다이어리 홍보는 크게 효과를 얻지 못했고, 모금 액수로 보아 다행히 다이어리에 눈이 멀어 마음없이 과도하게 기부하는 부작용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지나치게 지성이 충만한 디자인의 다이어리여서 여고생의 반응이 걱정스러웠지만, 예쁘다며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감탄 속에서 당첨자에게 다이어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 생활 속에서 나눔을 경험하다

모금함을 개봉하던 날 생각보다 모금액이 적어 제안자로서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조차도 평소 기부에 관심이 적었던 지라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졌다.

마침 우리 반에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관심을 가져 자료를 주었더니 이번 학예제 행사에서 봉사 동아리가 ‘귀신의 집’을 운영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부해주기로 했다.

“봉사 활동을 여기저기 다니기만 해서 기부는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 (김영란)

“아주 조그만 기부이지만 동참하면서 당연하기만 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김수빈)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의 자립에 보탬이 되었다는 게 뿌듯하다” (최은경, 이도원, 최단빈)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기뻤다” (김소영)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경진)

“남을 도우면서 생기는 신뢰에 스스로 든든했다” (김태인)

겨울방학 직전이지만 설레임보다 기말고사 결과 때문에 씁쓸해 하던 아이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소감을 보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오히려 우리 반 아이들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성숙이라는 기부를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글 | 부산 화명고 2학년 11반 담임 조정련



## 돌기념, 결혼기념 나눔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나눔에는 돌기념나눔, 결혼기념나눔과 같이 생애에 중요한 순간들을 나누는 기부입니다.

잔치의 규모를 줄여 그 중 일부를 이웃과 나누거나, 잔치에 참여한 지인들에게 '나눔의 희망'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나눔인 <돌기념나눔>은 아이 이름으로 기부가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돌기념나눔에 참여하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동화책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은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지만, 나눔은 세대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을 아낌없이 실천한 2013년 돌기념나눔 참여자는 총 121명, 기부액은 총 48,447,170원 그리고 결혼기념나눔 참여자는 총 10쌍, 기부액은 5,370,000원입니다.



하늘준, 하늘찬 아기



은효네 가족

## 어린왕자 윤호의 한살 파티



윤호 아가와 엄마

### 하늘에서 온 천사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생명을 기부한 우리천사 윤호♡

무지개연못과 아로미는 윤호의 출산 때 제대혈기증을 했었답니다.

그 후로 1년.

### 돌기부

이건 따로 코멘트 안하려구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셨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포스팅할게요.

### 무지개연못 & 아로미

윤호의 첫 생일을 맞아 돌기부 했어요. 무언가 의미 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큰 행사 없이 전부 기부하려고 했으나 첫 아이다보니 부모님께서 서운해 하실듯해서 윤호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과 행복한 생일잔치를 치루고 윤호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는 단체는 많지만 저희가 선택한 곳은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수녀님께서 항상 나눔 봉사활동 가셨던 곳이라 마음에 두었던 곳이죠.

### 돌기부 방법

아름다운재단 웹사이트 돌기념나눔 페이지에서 아이 이름으로 가입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기부하실 때 아기에게 편지 쓰는 란이 있어요. 돌 행사 전에 기부증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금액에 따라 주시는 선물도 약간 차이 있지만, 저희는 기본만 받았답니다.

### 윤호에게 쓴 편지

사랑하는 윤호야 생일 축하한다. 윤호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많이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 속에 건강히 태어나고 축복받았고...

윤호의 첫 생일날엔 가족, 친척분들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단다.

### 사랑하는 윤호야

엄마아빠는 윤호의 첫 생일을 맞아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와주기로 했단다. 엄마아빠의 선택이 너의 삶에 소중한지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의 1%는 너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란다.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 윤호는 조금은 느리지만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가슴 시리게 예쁜 윤호야 사랑한다.

엄마아빠가.

### 기부는 말 안하고 조용히

답례품에 작게나마 저희 마음을 적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슴이 따뜻한 돌잔치셨다고 기특하다 예쁘다 하셨답니다. 돌 잔치 때 노블엠씨께서 좋은일 하는거니 손님들께 멘트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부끄러워서 사양했어요. 하지만 답례품에 작은 쪽지가 있으니 잘 보시라고 코멘트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에게 기분 좋은 한마디, 주인 잃은 물건을 챙겨주는 일, 다음 사람을 위해 했던 배려있는 행동들... 모두 나눔이고 기부고 사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윤호에게 내뱉는 이런 말들을 윤호가 알아듣고 있을까요? 작은 몸으로 꼼지락 거리며 윤호가 과자를 먹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까끼를 나눠주더라고요. 자기 한 입, 엄마 한 입.

나눈다는걸 우리 아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호에게 든든한 후원자이며 모범이 되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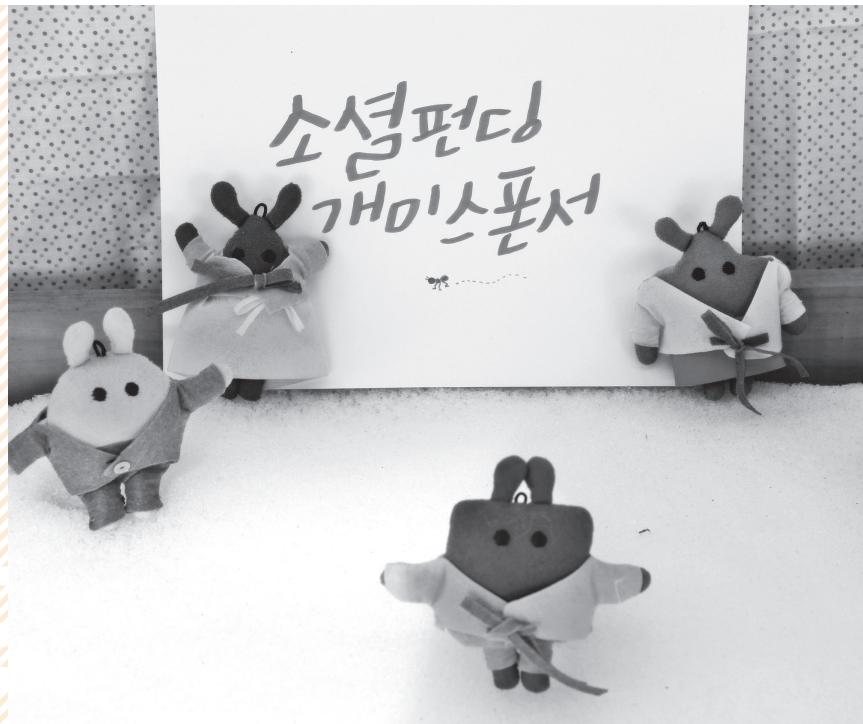
글 | 윤호를 사랑하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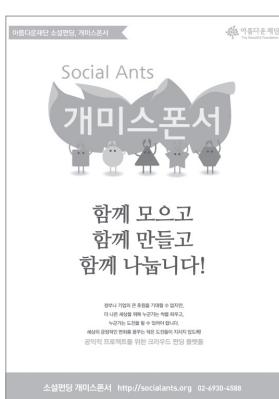
돌기념나눔 카드



윤호아기의 돌잔치 답례품



개미스폰서는 99%의 힘과 1%의 가능성 향한 작은 시도입니다. 1%의 변화만 있어도 세상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99%들의 공간입니다.



소셜펀딩을 지향하는 개미스폰서는 작은 1%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변화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꿈의 공간입니다.

개미스폰서는 ‘흔자가 아닌 사람들’의 응원과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입니다. 2013년 개미스폰서의 성적은 총 58개 프로젝트, 총 모금액 105,375,926원, 총 참여건수 1,032건입니다. 당장의 구체적인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큰 돈이 필요치 않거나 화려해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작은 시도가 끊이지 않도록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꿈꾸는 시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개미스폰서들이 필요합니다.

## 올 겨울 어르신 댁에 텐트 하나 놔 드려야겠어요

통상 에너지 빈곤층은 난방과 취사, 조명 등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정부는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연탄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물 쿠폰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실내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최소 난방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에서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문제를 알리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개미스폰서 난방텐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난방텐트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성능에 있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으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은 텐트입니다. 실험 방법은 실내온도 8°C 환경 속에 난방텐트를 설치 한 후 텐트 내부에 전기장판을 가동하여 텐트 내 온도가 18°C가 되었을 때 작동을 중지하고, 내부 온도 변화 추이를 측정하였는데요.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텐트 내부 온도가 실내 권장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통해서 약 3주간 난방텐트 40개를 전달하는 모금 프로젝트가 실시 되었습니다. 많은 기부자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19명의 기부자님들과 텐트 제조사 바이맘의 참여로 41가구에 모두 난방텐트를 전달하였습니다.

### 41가구, 난방텐트를 설치하다

마포와 중랑구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임대아파트의 41가구에 난방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4개의 지역 복지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과 아름다운재단의 간사들 그리고 부산에서 이를 모두 달려와준 바이맘의 임직원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원래는 40가구 였지만, 설치하려간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댁이 외풍이 심하다는 얘기에 바이맘에서 여분으로 가져온 난방텐트 하나를 추가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41가구에 난방텐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난방텐트 설치방법 교육중



난방텐트 설치 중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책상에 붙어 있는 “공부하자 이번에는 꼭” 같은 아이들의 다부진 다짐이 적혀있는 책상, 난방텐트가 색이 곱다고 좋아하시는 할머니, 설치하러간 우리에게 고맙다고 굴이며, 과자, 쥬스를 냉장고 마구마구 내어주셨던 분들 손으로 직접 뜨신 수세미를 극구 손에 쥐어 주시는 주민분들.

첨에는 미심쩍어 하시며, 무료라고 말씀드려도 얼마냐며 나중에 돈내라고 하는가 아니냐며 그리고 설치비 따로 받는거 아니냐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시종 보내셨던 어머님께서 설치 된 난방텐트를 보시고는 우리가 안보는 줄 아시고 몰래 미소를 지으시는걸 보며 웃음이 나고 참 즐거웠습니다.

### 봄, 다시 겨울을 준비하다

올 4월이 되면 41가구 전체에 대해 난방비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용 후 효과가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41가구는 시작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측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음 겨울 더 많은 가구에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겁니다. 120만 가구 모두의 겨울이 따뜻해 질 때까지!

글 | 이창석 간사

# 기업시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다

## 태평양제약

2003년 4월부터 ‘케토톱’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여 〈태평양제약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을 조성. 지난 10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태평양제약의 ‘케토톱’은 공익연계마케팅 상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

(주)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은 2004년부터 꾸준히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교보생명은 사내 재무설계사 5,651명과 함께 6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은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의 입원치료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가정이 좌절하지 않도록 돋고 있습니다.

## 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은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인 〈희망가게〉 1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사회공헌 ‘희망동행’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으로 총 1,326명이 참여해 30,047,560원을 기부해 주셨고, 아모레퍼시픽은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희망가게〉 사업은 창업주 개인,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이들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창업주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GS칼텍스

2007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나눔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어린이를 위한 나눔 활동 확산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어린이 나눔캠프〉 등 어린이 나눔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비유필름

영화 〈완득이〉로 유명한 배우 유아인 씨와 영화 제작사 유비유필름은 영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또한, 소설 〈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씨도 이전에 인세 수익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해주셨던 인연을 시작으로 작가와 영화사 배우가 함께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 한국릴리

글로벌 제약회사 한국릴리에서는 임직원들이 주축되어 ‘이른둥이치료비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걷기 대회를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그 모금액을 아름다운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릴리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더 많은 이른둥이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멤쌀이용 300석마다 30만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우리는 심청이’ 캠페인

을 진행하여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주셨습니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기부금은 캠페인 이름의 뜻을 살려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촉각점자 자료 제작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미래엔

(주)미래엔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시작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 정착꿈’ 캠페인에 2,5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아동 도서 2,500권을 필요한 아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 교보문고

(주)교보문고에서는 독자, 출판사, 기부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독서와 기부’라는 독특한 방식의 ‘엔젤북’ 캠페인을 기획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기부함에 독자들이 기부금을 낼 때마다 교보문고가 같은 금액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5개의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열여덟 어른의 자립 정착꿈’ 캠페인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 고레델

매년 꾸준히 이른둥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주)고레델은 2013년 맘앤베이비엑스포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부스 이벤트를 위하여 유아가방 200개와 이른둥이를 위한 <다솜이희망산타>에 유아가방 100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른둥이를 위해 유모차 30개를 기부해주셨습니다.

### 세피양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세피양은 2005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 <세피양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기부금도 증액되었고, 맘앤베이비엑스포 참여 시 유아젖병 706개를 기부해주셨습니다.

### Starwood(스타우드) 그룹

세계적인 호텔 및 레저기업인 Starwood(스타우드) 그룹은 각 호텔 수석 셰프들의 재능기부가 어우러져 두 달에 한 번씩 자선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아동양육시설 퇴소 거주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

2005년부터 ‘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요타자동차 기업은 매년 지원받는 학생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식사 초대와 더불어 문화체험 공연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Walk for dream’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 서울문화사

서울문화사는 격 주로 발간되는 ‘그라치아’ 여성 잡지에 기업의 브랜드가 소개되고 협찬 받은 제품의 경매수익금을 <희망가게>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 대학내일

대학내일은 2013년 GS칼텍스와 진행한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금 전액을 ‘아동양육시설 퇴소 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에 기부해주었습니다.

이 외에 현대로템, 고어코리아, 한국표준협회, 한국3M, 유니베라, 제이엔케이히터, LG생활건강, 이제너두, 주식회사 PKI, 안랩, 소프트뱅크코리아, 이알플러스, 꿈을담는틀, 엠플러스컨설팅, 샘터사, (주)윌텍, 사이버다임, 사이로직 등 수많은 기업들이 2013년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었습니다.

##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수익의 50% 기부 협약 후일담

2013년 9월 30일 현재 800만을 넘어 흥행 중인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작사 수익의 50%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주피터필름에서 영화 <관상>의 수익을 기부해주시기로 협약을 한 것은 지난 해 12월이었습니다.

주피터필름의 대표이신 주필호 대표와 기획이사이신 방미정 이사께서 예고도 없이 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 지나가다 재단 구경을 하고 싶어 들렀다고 하시며, 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설명도 듣고, 커피를 한 잔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표님이 재단으로 연락을 하셔서는 현재 촬영 중인 영화 <관상>이 개봉하고 난 뒤 제작사 수익의 50%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2년 12월 26일 재단을 방문하셔서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오른 손이 한 일, 왼 손이 모르게

협약 당시엔 촬영 중인 제작 단계지만, 혹시라도 영화 흥행을 위한 기부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 전인 2013년 9월 초, 영화 <관상>의 VIP시사회에 아름다운 재단 기부자들을 위해서도 100석의 좌석을 기부해주셔서 여러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초대하여 출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도 받고,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피터필름 주필호 대표님과 몇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제작사의 수익 나눔으로 인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영화 관람료 중 일부가 기부가 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 사실을 숨기지 않고, 관객들도 영화를 보는 것이 나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알면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주피터필름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흥행을 위한 공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망설이셨고, 결국 5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어 흥행을 하면 공개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개봉한 후 안정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최종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관상> 스틸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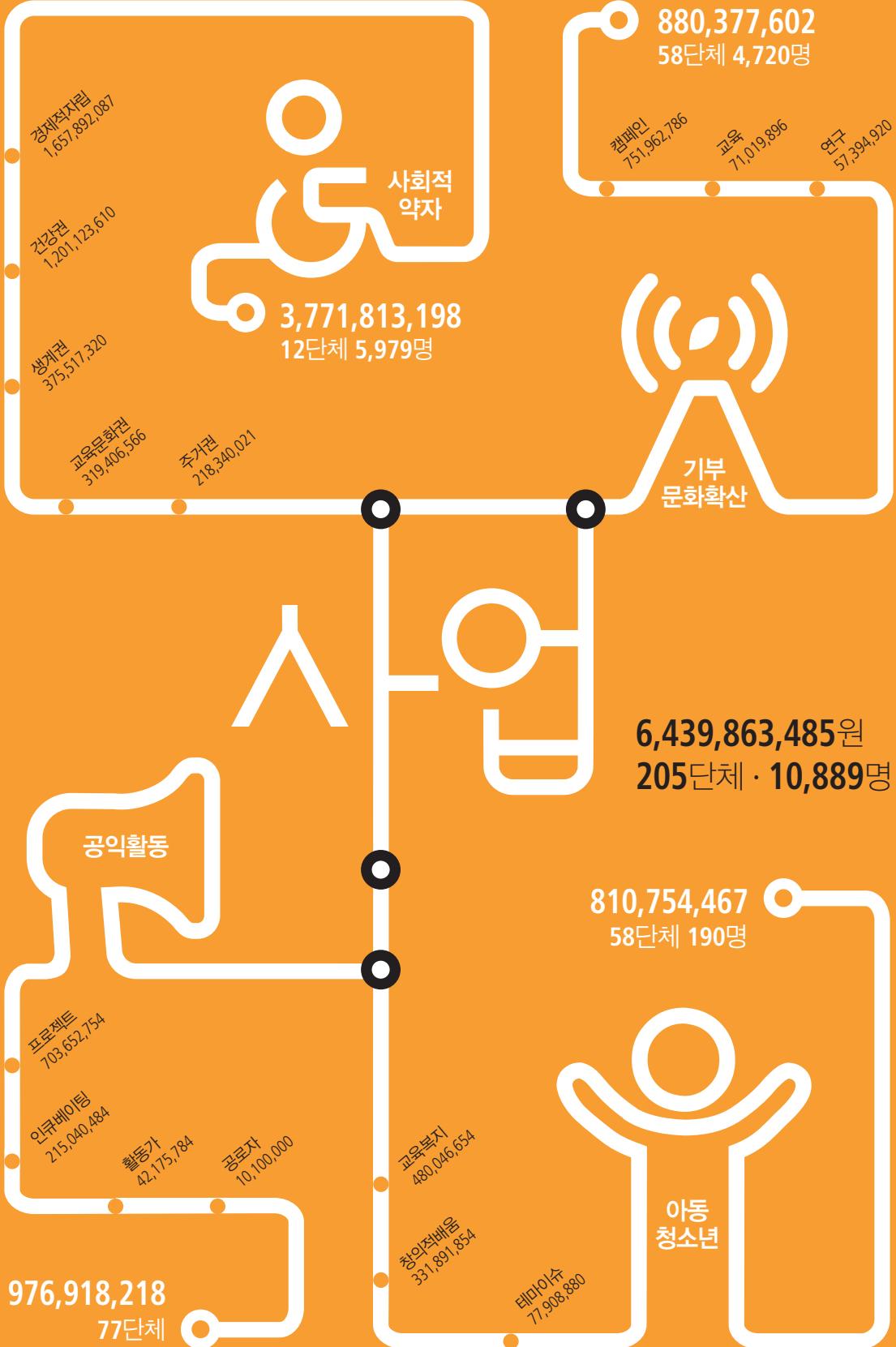
#### 착한 마음이 담긴 영화, 더 큰 나눔을 만들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아주신 수백만 명의 관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작단계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제작된 영화에, 수많은 관객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이 더 큰 나눔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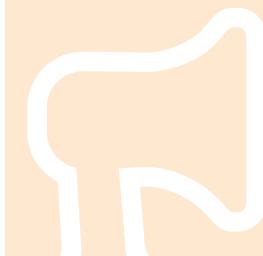
덕분에 아름다운재단은 이제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로 커지는 기부금을 더욱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행복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눔을 결심해주신 주피터필름과 그 나눔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신 영화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 | 한태운 팀장



## 공익활동 지원

<변화의시나리오>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 밀집지역 등 빈곤가구 밀집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활동,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동아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활동, 이주민이 당사자들을 돋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활동 등 더 나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교사, 청소년, 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슈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 이주민 문화 활동 단체, 지리산 주민 공동체, 공익변호사 단체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단체들을 새롭게 ‘인큐베이팅’하여 정착하는 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부보조 없이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로서 헌신하는 ‘활동가’들의 소진(Burn-out)을 치유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와 여행, 재충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리산커뮤니티 이음(異音)을 소개합니다

2013 인큐베이팅 공모가 되면서 조금은 긴 시간동안 총 33개 서류를 받아 1차에 4개 단체를 선정,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 때는 늘 그렇지만,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곳과 많은 기억이 있었어 그런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지리산커뮤니티 이음(異音)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리산커뮤니티 이음(異音)** 여기에서 이음이 하려는 일은 이음 = 1. 잇는다. 링크, 2. 다양한 목소리 異音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마을과 세상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적인 실험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프로젝트별 담당자를 세팅하고, 임시 사무실로 활용되기로 했던 공간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재정비 계획이 한창입니다.

지리산자락에서 이루어 질,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순간순간을 진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데 아름다운재단이 작으나마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고맙습니다. 끝으로 선정 발표 이후 지리산커뮤니티 이음(異音)에서 보내주신 메일을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도 느낍니다.  
한 10년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마중물이 되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보렵니다.



지리산 문화공간 토닥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 사무실

글 | 박혜윤 간사

##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재충전 지원사업

활동가의 피로, 완전해소법

'2013변화의시나리오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을 통해 총 10개 단위의 공익 활동가들의 재충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당찬 다짐과 함께 공익활동가 3명이 네팔에 다녀왔습니다(총 선정 된 10 단위 중 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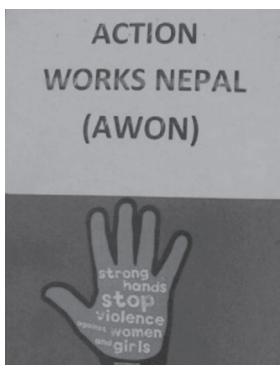
카트만두의 사원 앞에서

### #1. 업무로부터의 해방

휴가철인 8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분주한 달이다. 특히 청소년단체는 더더욱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롭게 해외로 떠난다. 왜 해외로 떠나는지에 대한 답변은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하게 되잖아!” 결국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결의했다. 데이터 로밍을 끊기로…

### #2. 네팔의 시민단체도 후원은 필수구만

카트만두는 민주화운동으로 왕권이 붕괴되어 민주화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생겨났다고 한다. 카트만두에서 우리들이 둘러본 시민단체는 Hoste hainse라는 곳으로, 예전 518기념재단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디팍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Hoste hainse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잉여금을 가지고 자선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공립학교마저 다니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자은 학교라는데, 여러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처럼 여러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필요해보였다. 네팔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Action nepal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오이스트가 많이 거주하는 서부 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돋는 일을 한다.



### #3. 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한 운동

네팔은 성소수자 인정국가다. 우리가 찾아간 Blue diamond society 단체 사무실은 성소수자 인정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Action nepal이나 Hostel hainse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 #4. 불교, 힌두교, 많은 사원들

카트만두는 종교의식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존재한다. 우리가 찾은 두르바르 광장과 바탄 광장도 종교의식으로 분주하다. 카트만두에는 여러 명의 왕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 왕들의 사원이 카트만두 지역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 웅장함이 그 당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생애 처음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안나푸르나가 가까운 포카라 지역으로 향했다.



네팔의 사회적 기업 3Sisters



안나푸르나 절경을 뒤로 하고

### #5. 한국이 주목해도 좋을 사회적 기업 3Sisters

트레킹을 하려면 가이드와 어시스턴트(이른 바 짐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문맹률과 고용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3Sisters를 이용했다. 이 여행사는 수익의 절반 이상의 비용을 교육, 고용,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활동을 하고 있다.

### #6. 한국의 교육열 못지않은 네팔의 교육열

트레킹 동안 우리의 짐을 나눠들어준 어시스턴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다. 그는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립학교에 등교시킨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어시스턴트의 설명이다.

### #7. 클럽을 방문케 하는 네팔 투어리스트 버스

네팔과 인도의 접경지역 룸비니로 가기 위해 투어리스트 버스를 타야했는데 가는 내내 클럽을 방문케 하는 음악을 틀어줬다. 아찔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위험스럽게 가야했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본 네팔의 산맥과 흐르는 강의 경치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 #8. 룸비니 분위기만으로도 평화로운 지역

긴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룸비니는 포카라보다 한가로웠다. 숙소는 한국 조계종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는데 300루피 정도의



재충전 된 힘, 쭉 이어가길

저렴한 비용을 내면 숙식 모두를 이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새벽과 밤에 진행하는 예불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서 일종의 힐링을 경험하였다.

#### #9. 원하지 않은 귀환

우리는 마지막 일정을 카트만두에서 보냈다. 아끼며 굽주려온 돈으로 비싼 스테이크도 사먹었고 와인도 한 잔 거하게 마셨다. 한국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굳이 풍요로움이 아니라도, 재충전 된 힘을 잃지 않고 활동하길 우리 스스로 다짐해본다.

오래도록 이 모습 간직하시기를!

글 | 김종필 (광주생명의숲 활동가)

● 아름다운재단 사업 공익활동 지원 <변화의시나리오>

구분	단위사업	지원내용	단체	지출액
프로젝트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공익단체의 3년 이내 신규/연속 프로젝트 지원	8	201,959,473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B	공익단체의 1년 이내 프로젝트 지원	10	181,986,295
	변화의시나리오 연속지원	공익단체의 프로젝트 연속지원(2011~2013년 종료)	9	166,102,91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공익단체의 3개월 이내 프로젝트 지원	36	153,604,074
인큐베이팅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신생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2	104,163,82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활동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110,876,664
공로자	풍력공로자지원사업	풍력발전 공로자 시상 지원	1	10,100,000
활동가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10	42,175,784
진행	변화의시나리오 진행			14,779,346
환급	변화의시나리오 사업별 환급 합산 1)			-8,830,150
공익활동 지원				976,918,218

1) 2012변화의시나리오특별지원사업, 2012공익네트워크지원사업, 2012활동가보육비지원사업, 2012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지원사업의 환급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지원

<꿈꾸는다음세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자발적으로 본인의 꿈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창의적 배움’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체험과 배움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일, 공익을 향상시키는 자원봉사와 캠페인 활동,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배움에 도전하는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이 본인의 여건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복, 학비, 교재비, 수학여행 비용 등 학업과 관련된 ‘교육복지’를 꼭넓게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

### 7년간 키워 온 하나의 꿈

2013년 9월, 아름다운재단 흥보팀은 A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20대 초반 김현수(가명)군을 만났는데요. 그는 2012년 겨울, 아름다운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올 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입니다.

대학 3년차. 중간을 넘어선 요즘 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현수 학생이 편안함을 찾는 곳, 노천극장

“당연히 진로죠. 저는 사범대학 전공은 체육이에요. 그래서 체육선생님이 되기 위해 중등임용고시를 생각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대학 전공과 무관한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웬지 이 친구는 처음부터 진로를 정하고 전공을 선택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로를 언제 정했나요?

“열여섯 살 때요. 어렸을 때부터 한 길만 바라보며 왔는데, 막상 임용고시를 볼 수 있을지 겁도 나고 그러네요.”

### 7년간 키워 온 하나의 ‘꿈’

열여섯 어린 나이에 이미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도 놀랍고, 이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밟아온 나날도 참 대견했습니다. 올곧게 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준 좋은 선생님에 대한 그림이 있나 봐요?

“제 롤모델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이에요. 수업이 참신했거든요. 저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육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선배로서 학생 개개인이 꿈 꿀 수 있는 영감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좋아 사범대학을, 운동이 좋아 체육학과를 선택한 현수 학생. 그 동안 학비 마련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번 장학금이 도움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1학년 때는 미래드림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길만 바라보며 걸어 온 길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기쁨을  
이는 현수 학생

2학년 때부터는 정책이 바뀌면서 학점 4.0을 받아도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사실 등록금만큼 생활에도 돈이 많이 쓰이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시설 퇴소하면서 받은 자립지원금은 대학생활 2년을 거치면서 모두 써 이제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려 했을 때 재단 장학금 받으면서 휴학을 미뤘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학원비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거든요. 제가 벌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체육학과 졸업하면 일반 강사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현수 학생에게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해 혹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단박에 ‘성적’ 아니냐고 답하더군요. 아름다운재단의 장학생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 그 꿈을 위해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친구. 현수 학생 같은 친구를 뽑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10년 뒤 바로 오늘, 현수 학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야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체육수업을 하고 있겠죠.(미소)”

아름다운재단의 첫 기금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은 시설 퇴소와 함께 자립을 해야 하는 이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0여 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돋겠습니다. 이 뜻과 바람을 지지해 주신 기부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사진 | 홍리. 두은정 간사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술인촌을 바꾸는 시간, 16주 프로젝트 “미술학교”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은 〈한국의대에서 만들기기금〉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3월 모집하여, 5월에 총 10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미술학교’팀은 공사가 15년간 중단되어 있는 건물을 벽화로 새단장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해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사업은 강원도 인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문화예술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 '내설악예술인촌'을 바꾸는 시간, 16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예.바.시.16”은 건물주의 개인 사정으로 건축이 중단된 후 마을의 흉물로 남아버린 곳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4인이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술학교 팀 (왼쪽부터) 박예진 정하연 조아현 양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지만 지역의 여건상 어렵기도 하고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해 배우는 입시 미술보다는 지역의 활동을 하면서 미술을 배우는 아이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했습니다. 그 ‘미술학교’팀은 2013년 여름 내내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참여의 길을 열여 미완성 건물을 말끔하게 단장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26일, 미술학陁팀은 “청소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바시 16주] 완성기념식”이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노력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벽화 완공식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

땡볕에서 엄청난 크기의 건물에 작업을 하는 본인들이 제일 힘들었을 텐데도,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많은 분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외치는 미술학陁팀.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런 마음을 다 아셨는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제군수님, 학생들의 학교 교감선생님, 예술인촌의 선생님들,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완공식”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 이 프로젝트를 계획, 시작하고 또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프로젝트 “예술인촌을 바꾸는 시간, 16주”를 이끈 ‘미술학교’팀 조아현, 정하현, 박예진 님이 직접 사회도 보고,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 소개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프로젝트 진행상황도 직접 준비하여 보고하였는데요. 워낙에는 PPT로 멋지게 준비했는데, 행사 당일 날씨가 너어~무 좋아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출력하여 보고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계획하게 될 때부터 그간 과정 이야기, 절망하게 된 순간, 그럼에도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열심히 인사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긴장하고 덜덜 떨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술술~ 잘 풀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로만 감사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깨알 같은 준비를 했는데요. 행사장 여기저기서, 그리고 행사 진행 내내 그런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행사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오신 분들께 떡,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는데, 이 역시 지역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대접해드릴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신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건물 한 쪽에 큰 현수막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건물의 모습과, 진행 과정, 완성된 모습과 함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보니 정말 “함께” 진행했다는 것이 한 눈에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술학교 팀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다리를 건너 지인의 도움으로 도자기로 정리! 팀원들이 직접 컵을 만들고 건물의 매화 그림과 같은 매화 그림을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담아 감사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구매하여 선물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들의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은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 이 역시 감동입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드린 감사의 선물. 직접 선물을 풀어보시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감동하셨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쭈욱’ 함께 해주실거죠?

아름다운재단에 제출한 프로젝트는 건물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미술학교팀과 지역 주민의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건물이 또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이 공간을 건물주, 관공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공감한다고 하니 마음을 모으는 큰 산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하기에는 또 많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제일 먼저 일을 벌인 미술학교 팀. 그들의 작은 시작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글 | 박정옥 간사

구분	단위사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출액
창의적배움	청소년자발적여행지원사업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프로젝트 지원	15		123,964,313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	10		21,909,914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청소년과 함께 진로교육 로드맵 만들기 지원	1		80,382,000
	아동청소년특기적성활동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 특기정성과 재능개발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30		99,635,627
	하라기금지정기탁사업	2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		6,000,000
교육복지	아동양육시설소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	48		173,495,889
	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	저소득 고등학생 전학년 교육비 지원	94		177,224,900
	성적우수고등학생교육비지원사업	저소득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대학 교육비 및 자기계발비 지원	24		70,701,265
테마이슈	대전지역 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대전지역출신이공계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	7		58,624,600
	아동청소년소원이루기지원사업	문신제거가 필요한 청소년 문신제거 시술 연속지원	17		77,908,880
진행	꿈꾸는다음세대, 아동캠프지원 진행				2,551,192
환급	꿈꾸는다음세대 사업별 환급 합산 2)				-81,644,113
<b>아동청소년 지원</b>					<b>810,754,467</b>

2) 2012아동청소년스포츠활동지원사업, 아동청소년소원이루기지원사업의 환급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소원이루기지원사업의 경우 협력기관이 협력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환급분이 발생하였으나, 사업비는 17명에게 예정대로 지원하였습니다.



# 사회적약자 지원

## <사회적돌봄>



아직 정부의 돌봄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된 채 일찍 세상에 나와 인큐베이터와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이른둥이,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돌볼 이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계와 겨울철 식사, 또 주거위기에 처한 소년소녀가정들과 맞춤형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님들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지원과 함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작은 숨결 큰 희망

2004년 9월부터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통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들에게 1,708건의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이른둥이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147건을 선정하였으며, 총 210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기입원 치료비와 24개월 이내 재입원 치료비, 만 6세 이하의 재활 치료비까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이른둥이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이른둥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를 모를 수많은 병마와 헐로 싸우며 세상과 직면합니다. 가녀린 작은 생명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 속에 매순간이 위기입니다. 출생 직후 집중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른둥이와 가족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소중한 나눔은 든든한 길벗이 됩니다.

글 | 전서영 간사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엄마 가장의 든든한 스페어타이어



한부모 여성 가장의 약상자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3년 200명의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 중 장희정(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센터장)씨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편견의 벽과 마주하다

마흔을 지나서 이혼을 선택했다. 어덟 살 난 딸과 돌을 지난 아들을 품은 마흔한 살의 이흔녀라는 꼬리표가 버거웠고, 편견 앞에 취업문은 높기만 했다.

“월급이 백만 원도 채 안 되는 곳이지만 면접 볼 때 제가 한부모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물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돈이라서 안 된다니…”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편견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때 길에 걸린 인천여성민우회 ‘여성 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현수막.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1%기금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지원한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프로젝트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낯모르는 사람들과 부모 ·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던 한부모 가정의 고단함을 나눴고 자기 자신과도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녀의 인생 제2장이 시작되었다.

### 아플 수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

올해로 7년째인 그녀는 공부방 교사로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 센터장으로 종횡무진 내달렸다. 누구보다 그들의 고단함을 잘 아는 ‘당사자’ 이기 때문이었다.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정기검진은 낯선 단어임에 분명했다. 장희정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정기검진 실시 후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 방문하라기에 긴장했죠. 장에 뭔가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더라고요. 암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했다. 애들은 어떡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한 것도 기적 같은데 2차, 3차 시술비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종합검진결과표

고비마다 달려와 손 내밀어주는 아름다운재단이 반갑고 또 고맙다는 장희 정씨.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돋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간혹 한부모 가정은 스페어타이어 없는 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데 평크 나면 어쩌나 걱정이죠.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 기금’은 우리들의 스페어타이어가 돼 줬다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충전하기를, 햇살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글 | 우승연 작가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다



보행훈련 보조기구

아름다운재단이 7년 동안 진행해 온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처음 보행훈련 보조기구 사용자로 확장한 것은 바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관심 영역으로 이끄는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파트너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혜원 연구원은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쉽게 국가적 급여 품목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립기구나 보행훈련기구 지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 뜻밖의 시련을 받아들이기까지

1차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를 마친 지난 7월, 드디어 15명의 보행훈련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에 기훈이(가명/37개월)가 올랐다. 어머니 성인옥(가명)씨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라 말한다.

“제발 걷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재활치료사님과 의사선생님께 물어봐서 점진적 보행기를 소개받았는데 450만 원이라기에 망설이던 차였어요.”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이미 아래저래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았다. 나이 마흔에 넣은 늦둥이의 재활치료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방과 서울 그리고 분당에서 아들과 병원 생활을 하며 지내는 성인옥씨의 소원은 단 하나, 기훈이의 보행이었다.

“사설치료센터에 갔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추천도 받았어요. 옵션이 굉장히 많은 기구인데 하나씩 제거해나가면 기훈이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행이 가능해지겠죠.”

#### 사각지대를 비춰 자립을 지원하다

그녀는 ‘소득이 낮고 장애가 있는 게 불쌍해서 돋는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에서인지 부쩍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생각하고 이동권을 고민한다. 그 생각의 언저리에서 자신의 고단함을 공감해 준 누군가의 적극적인 나눔. 그것은 기훈이가 걸을 수 있다는 희망만큼이나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한다.

글 | 우승연 작가

## 희망가게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 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2004년부터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희망가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10주년 행사를 마치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02곳의 희망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사업은 무보증 신용대출(マイ크로 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 후 창업주들이 매월 수익의 일부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여성가장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3년에는 <아름다운세상기금>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굳센 어머니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하기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희망가게 창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창업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글 | 송혜진 팀장

구분	단위사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출액
건강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입원 및 재활 치료비 지원, 사회인식개선 캠페인	210		555,222,872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지원사업	근로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200		191,083,642
	노인낙상예방보조기구지원사업	낙상 취약 노인에게 보행 및 육실용 보조기구 지원	195		186,068,850
	다시!와락프로젝트지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1		141,897,743
	저소득근로자치과치료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에게 치과진료 지원	41		103,141,550
	범죄피해자및가족지원사업	범죄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생계보조비 지원	12		23,102,953
교육문화권	노숙인겨울나기지원사업	동절기 노숙인을 위한 방한물품 지원	10		606,000
	장애인아동맞춤형보조기구지원사업	보조기구 필요 장애아동에게 기립 및 보행보조기구 맞춤 지원	116		313,564,566
주거권	시각장애아동을위한족각점자자료제작지원사업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족각점자 자료 제작 지원	1		5,842,000
	소년소녀가정주거지원사업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100		178,004,021
생계권	어르신난방비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동절기 난방비 지원	192		40,336,000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국배달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동절기 따뜻한 국을 지원	3,975		210,136,788
	어르신생계비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생계비 지원	78		99,267,370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지정기탁사업	故이창식 기부자 유자녀 생계비 지원	1		3,600,000
경제적자립	현물지원	잡화/의류, 침구/생활필품, 유아용품, 상품권	803		62,513,162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가장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56		1,657,892,087
진행	사회적돌봄, 중개사업, 특별지원 진행 3)				411,790
환급	사회적돌봄 사업별 환급 합산 4)				-878,196
사회적약자 지원					3,771,813,198

3) 사회적돌봄 영역의 신규 사업 조사, 특별지원 및 중개사업 진행비를 포함한 내역입니다.

4) 2012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의 환급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부문화 확산

<기빙코리아>  
<나눔교육>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는 국내 기부문화 전문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씽크탱크로서 한국사회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문화, 기부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나눔교육, 비영리 민간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아동 청소년의 급식과 자립,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캠페인 사업을 통해 시민 기부자 여러분들의 사회적 관심과 기부참여가 필요한 이슈를 안내하였습니다.

## 기빙코리아2013

### 한국 기업사회공헌 성장을 위한 두 개의 도전

2013년 10월 23일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3>이 진행되었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기업기부금 기부실태 조사는 큰 재난재해와 같은 '사건'이 없는 한 이변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지난 15년간 기업기부 조사에서 일관되게 보여 오던 추세가 다소 변화하는 흥미진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매출상승에 따른 양적/질적 성장, 그러나 양극화 우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2010년에 비해 기업의 평균기부금액이 8억 4천만 원에서 14억 7천만 원으로 약 75%의 가파른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0.12%로 예년과 비슷하고,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상장기업 기준으로는 0.92%로 2010년 1.69%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사회공헌을 경험한 기업의 94.2%가 기업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양화되고 있어 기업기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어 온 '사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그 응답율이 많이 낮아진 것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문성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기부금 지출이 전혀 없는 곳이 절반정도이고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대비 기부금비율이 세배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여전한 한국 기업사회공헌의 특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결정적인 요소는 'CEO의 의지'(77.7%,중복응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의 재원은 '기업이익', '사원의 기부', 'CEO나 임원이 기부'순으로, 기업에서 직접 기획해서 기부금 집행하는

방식이 제일 많고(44.3%), 그 다음이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을 통하는 것(14.4%)인 것도 예년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가 주목해야 할 기업설문 결과 항목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경험에 대해 58.3%가 '중단/변경 경험 없다'고 하여 비교적 지원의 지속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부분야별 기부비율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8년 5.9%, 2010년 4.1%, 그리고 2012년 2.1%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기부금과 자원봉사참여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유독 '환경보호'영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비중이 높은 반면 기부금은 적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문항으로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공익단체의 사업관리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14.4%로 나타났습니다.

글 | 전현경 간사

## 나눔교육

### 내가 가 본 캠프 중 최고, 어린이 나눔캠프

10년째를 맞은 아름다운재단 <어린이 나눔캠프>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마음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나눔클럽을 위해 지원해준 기업 GS칼텍스와의 나눔 교육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묵묵히 7년 연속, 어린이의 나눔교육을 위해 기부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체험활동 1박 2일

70여명의 어린이들이 7모둠으로 나누어 1박 2일동안 장애인, 다문화 어린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이웃임을 느끼는 체험활동과 쉽지는 않았지만 길거리 모금활동도 했습니다.



제10회 아름다운 어린이 나눔캠프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장애인을 만난 모둠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였지만 차츰 마음을 열면서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임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

아쉬운 1박 2일 모둠별 체험활동을 마치고 한마음청소년수련관에 입소하여 어린이캠프 참가자 모두 모여서 즐거운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캠프기간동안



어린이 나눔캠프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둠활동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캠프기간동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경우 조용히 귀를 쟁긋 세워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보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활동은 모둠친구들이 함께 정하고 함께 해야 해요. 조금 뒤쳐진다고 비난하거나 재촉해서도 안돼요. 뒤쳐진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나보다 먼저 이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며, 이러한 나눔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에너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해요. 시간이 늦을 경우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넷째, 언어폭력이나 친구를 왕따 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지도선생님 또한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지요. 대신 아이들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지요.

어린이 나눔캠프의 매력이 이러한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 나도 어린이 모금가!!

마지막날 모둠별로 받은 용돈과 길거리 모금활동으로 모은 돈을 모아보니 1,564,440원이였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모은 돈이기에 더욱 값진 것 같아요. 이 소중한 돈은 홀로사시는 어르신의 국배달, 장애 어린이의 보장구, 소년소녀가정의 주거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고생하며, 남과 소통하고 설득시키는 법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부쩍 성장한 자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부금과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이 참 자랑스럽고 이별의 아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모금활동의 매력에 흠뻑 빠진 아이들과 9월 있을 어린이 모금가 ‘반디’ 프로그램에서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글 | 정온주 간사

구분	단위사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출액
연구	기빙코리아	기빙인덱스 및 기업사회공헌지수 발표, 기부문화 심포지엄	155		42,654,300
	기부문화연구기획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14,028,540
	기부문화연구소운영	대한민국의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조사 및 심층연구 진행			712,080
교육	어린이나눔캠프	초등학교 3~6학년과 함께 하는 나눔캠프	90		23,757,345
	어린이나눔클럽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멤버십 나눔교육 프로그램	240		14,453,560
	기부문화총서	비영리 부문의 경영, 모금 및 운영전략에 관한 전문 서적 발간			11,292,691
	기부문화도서관운영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도서관 운영			9,278,480
	나눔교육인프라 비영리 브랜드레이징 교육	기부문화총서 발간 기념 및 비영리단체 교육	300		8,499,500
캠페인	비영리역량강화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2,200,000
	비영리뉴스레터	비영리단체를 위한 자료제공 메일 서비스	2,238		1,538,320
	소셜편딩 캠페인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펀딩	58		107,481,724
	나는반대합니다 시즌2	아동양육시설의 적정 급식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및 연구사업	130		464,011,780
캠페인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더위 캠페인 시즌2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선풍기와 여름이불 지원	1,567		74,052,142
	열여덟어른의 자립정착꿈 '꿈의 만개'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정착금 지원 및 연구사업			22,164,960
	캠페인 진행준비				4,932,350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안내 활동				79,319,830
	<b>기부문화 확산</b>				<b>880,377,602</b>



-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재정

##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재정

### ● 수입 현황

구 분	금 액
기부금 수입	8,144,004,986
기부금 외 수입	3,640,100,302
수입 합계	<b>11,784,105,28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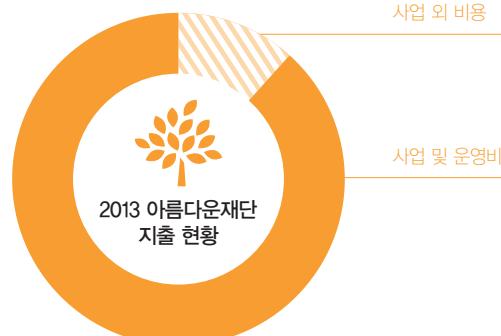


기부금 수입은 기금 수입, 운영후원금, 현물기부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왖 수입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보유주식 처분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 ● 지출 현황

구 분	금 액
사업 및 운영비	8,129,356,284
사업 왖 비용	291,738,049
지출 합계	<b>8,421,094,333</b>



사업 및 운영비는 배분사업비, 운영사업비, 현물지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왖 비용은 이자비용, 잡손실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합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단은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및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정이성  
정이성



2014년 2월 2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4년 2월 2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제 14 (당)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전)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b>자산</b>		
I . 유동자산	34,617,042,378	31,252,759,975
(1) 당좌자산	34,585,942,378	31,252,759,97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46,815,092	2,938,744,148
2. 단기금융상품	16,962,061,918	13,000,000,000
3. 단기매도가능증권	12,758,154,116	14,942,549,310
4. 매출채권	6,187,060	-
5. 미수금	56,617,331	44,067,697
6. 미수수익	68,822,340	304,290,250
7. 선급금	11,351,417	17,993,570
8. 선급비용	137,920	-
9 미수법인세환급액	161,848,408	-
10. 기부물품	13,946,776	5,115,000
(2) 재고자산	31,100,000	-
1. 상품	31,100,000	-
II . 비유동자산	33,670,071,357	34,574,696,084
(1) 투자자산	26,097,793,879	27,603,244,773
1. 매도기능증권	13,397,696,541	6,339,709,584
2. 만기보유증권	2,953,894,222	11,549,391,573
3. 보험자산	395,390,000	363,330,500
4. 아름다운가계출연금	9,350,813,116	9,350,813,116
(2) 유형자산	4,746,188,831	4,853,901,664
1. 토지	4,017,517,801	4,017,517,801
2. 건물	885,105,170	885,105,170
감가상각누계액	(204,645,745)	(116,135,228)

과 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3. 기타의 유형자산	135,364,286	138,935,504
감가상각누계액	(87,152,681)	(71,521,583)
(3) 무형자산	9,601,167	14,562,167
1. 소프트웨어	2,451,167	4,552,167
2. 기타의무형자산금	7,150,000	10,010,000
(4) 기타비유동자산	2,816,487,480	2,102,987,480
1. 보증금	2,816,487,480	2,102,987,480
<b>자산총계</b>	<b>68,287,113,735</b>	<b>65,827,456,059</b>
<b>부채</b>		
I . 유동부채	3,171,066,326	3,396,685,131
1.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2. 미지급금	134,310,058	261,902,613
3. 예수금	17,902,825	10,663,050
4. 미지급비용	-	1,315,068
5. 선수금	-	10,000,000
6. 미지급법인세	18,853,443	112,804,400
II . 비유동부채	285,655,303	221,751,689
1. 퇴직급여충당부채	285,655,303	221,751,689
<b>부채총계</b>	<b>3,456,721,629</b>	<b>3,618,436,820</b>
<b>자본</b>		
I . 자본금	50,835,234,583	47,763,498,447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50,508,325,349	47,436,589,213
II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23,254,616	3,164,892,704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611,340,702	3,164,892,704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88,086,086)	-
III . 이익잉여금	11,571,902,907	11,280,628,088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436,380,444	3,040,185,331
2. 미처분이익잉여금	8,135,522,463	8,240,442,757
<b>자본총계</b>	<b>64,830,392,106</b>	<b>62,209,019,239</b>
<b>부채와자본총계</b>	<b>68,287,113,735</b>	<b>65,827,456,059</b>

**운영성과표**

제 14 (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b>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b>		
<b>I. 사업수익</b>		9,960,839,844
(1) 고유목적사업수익	9,809,599,943	9,960,839,844
1. 기금수입	7,724,111,409	6,863,060,979
2. 현물기부수입	71,244,938	165,537,657
3. 운영후원금수입	348,648,639	985,095,219
4. 이자수익	1,535,411,879	1,741,879,846
5. 배당금수익	87,614,550	190,754,500
6. 사업수입	42,568,528	14,511,643
(2) 수익사업수입	9,145,071	-
1. 매출액	9,145,071	-
<b>II. 사업비용</b>	8,129,356,284	8,500,134,702
(1) 사업비	6,646,056,538	6,817,674,075
(2) 수익사업원가	9,408,745	-
(2) 일반관리비	1,473,891,001	1,682,460,627
<b>III. 사업이익</b>	1,689,388,730	1,460,705,142
<b>IV. 사업외수익</b>	1,965,360,274	3,447,289,807
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962,320,400	3,446,391,300
2. 이자수익	787	-
3. 잡이익	3,039,087	898,507
<b>V. 사업외비용</b>	291,738,049	645,979,903
1. 이자비용	91,405,460	120,259,717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139,450,000
3. 유형자산처분손실	222,301	-
4. 법인세등	193,826,239	341,778,650
5. 투자자산처분손실	995,358	-
6. 보험자산평가손실	-	44,305,300
7. 외화환산손실	8,022	41,662
8. 잡손실	5,280,669	144,574
<b>VI. 순자산의 증가</b>	3,363,010,955	4,262,015,046
<b>VII.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b>	(3,071,736,136)	(4,898,912,533)
1. 기금간전출입에 따른 제약의 해제	(3,071,736,136)	(4,898,912,533)
<b>IV.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b>	291,274,819	(636,897,487)

과 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b>제약이 있는 순자산변동</b>		
<b>I . 기초순자산</b>		50,928,391,151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7,436,589,213	42,537,676,680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164,892,704	4,647,477,746
<b>II . 기말순자산</b>		53,258,489,199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50,508,325,349	47,436,589,213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423,254,616	3,164,892,704
<b>III . 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b>		2,330,098,048
<b>총 순자산 변동액</b>		
<b>I . 기초순자산</b>		62,209,019,239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7,436,589,213	42,537,676,68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40,185,331	1,072,180,514
4. 미처분이익잉여금	8,240,442,757	10,905,186,961
5. 회계변경의누적효과	-	(59,841,900)
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164,892,704	4,647,477,746
<b>II . 기말순자산</b>		64,830,392,106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50,508,325,349	47,436,589,21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436,380,444	3,040,185,331
4. 미처분이익잉여금	8,135,522,463	8,240,442,757
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423,254,616	3,164,892,704
<b>III . 총 순자산의 변동</b>		2,621,372,867
		2,779,430,004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























\* 2012년 학제 동아리 대상으로 세상을 바꿔주시던 그들입니다.

##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며, 자신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2013 연차보고서'에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참여 방식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기부자님들께 꼭 말 씀드려야 할 내용은 작은 책으로 발간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디지털 연차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신 22,348분의 기부자님, 아름다운재단을 믿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기부금이 있었기에 10,889명과 205단체가 변화의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년여 간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지언정 아름다운재단의 소임을 놓아본 적 없습니다. 이는 나눔으로 함께 사는 사회, 생활 속 1%나눔을 이어가는 기부자님의 응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부자님의 믿음과 신뢰, 가슴에 새기고 올해도 앞으로도 나눔의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더욱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나눔으로 세상을 빛내주시는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재단 2013 연차보고서 인쇄판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 인쇄판 8~9, 23쪽 | 디지털판 10, 36쪽

[인포그래픽] 사회적약자 지원자수 '5,979명' / 사업 총 지원자수 '10,889명'

● 인쇄판 25쪽 | 디지털판 42쪽

[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내용 '공익단체의 3년 이내 신규/연속 프로젝트 지원'

[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내용 '공익단체의 1년 이내 프로젝트 지원'

● 인쇄판 29쪽 | 디지털판 57쪽

[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자수 '210명'

● 인쇄판 51쪽 | 디지털판 83쪽

8째줄 '10,889명'

발 행 일 2014년 6월 1일

발 행 인 예종석

기획 · 편집 아름다운재단 흥보팀

주 소 11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전 화 02-766-1004

팩 스 02-6930-4598

홈 페 이 지 [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 인쇄 디자인생선가게 (02-3673-2220)

안  
수  
인  
경  
기  
경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